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고령화 대비 돌봄체계 구축

경주시가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안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기존 체계를 개선해 대상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주(경북)=김준한 기자

영천시

경북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영천시가 ‘2025년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북도가 지난 1년간 도내 시·군의 투자유치 활동 실적을 종합 평가해 투자유치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시는 해당 기간 동안 ㈜카팩발레오와 16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으로 영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영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영양군

주소정책 업무평가 ‘우수기관’

영양군은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정보 업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영양군은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등 주소정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대구시

관광 활성화 로드맵 짚다

대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대구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제8차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관광 활성화 전략이 담긴다.

대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향후 조성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후적지 개발과 군위권 편입 등 지역 여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서울 마을버스 환승 계속된다… 지원 88억 증액

서울시, 마을버스에 500억 지원
마을버스 환승탈퇴 철회, 운행 강화
운행횟수, 출퇴근 시간 배차 늘려

서울시가 관내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올해 412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 탈퇴 의사를 밝혀 오던 관내 마을버스 업체들과의 갈등 국면을 정리하는 한편, 운행 횟수 확대와 정시적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용승)과 이턴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0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합의’에 이어 추가로 이뤄졌다. 앞서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은 대중교통 환승 체계 탈퇴 의사를 밝혀 왔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조합은 공동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19일 김용승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오른쪽)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첫차·막차 미준수, 배차간격 불균형, 미운행 차량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52개 노선을 전수 점검했으며, 2026년도부터 정시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운행 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마을버스 전체 운행 횟수는 올해 대비 약 5% 증가한다. 특히 운행이 부족했던 적자업체 노선

(154개)의 경우 최대 12% 수준까지 증편된다. 조합 역시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티머니 기반 운행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운행계통 준수 여부를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서비스 개선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도군 본예산 7563억… 역대 최대

미래성장·지역경제·수해복구 중점

청도군은 2026년도 본예산 7563억 원을 편성 최종 확정했다. 이는 일반회계 6828억 원과 특별회계 735억 원을 포함한 규모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211억 원보다 1352억 원, 21.8% 증가한 것으로, 청도군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000억 원 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전 공직자가 공모사업 발굴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241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재원 확충에 힘을 보탰다.

청도군은 민생 안정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아래 2026년도 본예산을 미래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중점

을 두고 편성했다.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글로벌 대학30사업 운영 지원 20억 원, 자연드림파크 개발사업 152억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70억 원, 농업인력숙소 건립 지원 53억 원, 농업인 교육정보센터 건립 35억 원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21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5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2억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는 청도읍 원정리 능곡천 재해복구사업 등 소하천 분야에 90억 원, 매전면 송원지 호우 피해 복구공사 등 농업기반 분야에 14억 원 등을 반영했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기도, 전국 최초 ‘피지컬AI 랩’ 개소

중소 제조기업 실증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제조 현장 실증 기반 ‘피지컬AI 랩(Physical AI Lab)’을 지난 19일 개소했다.

피지컬AI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으로,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다.

경기 피지컬AI 랩은 중소 제조기업이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실제 제조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실증 거점으로, 기업들은 산업용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AMR)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무료로 공정 테스트와 AI 적용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최대 6개 사로, 기업당 최장 3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도는 향후 3년간 매출 1000억 원, 고용창출 150명, 기술개발 50건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랩은 경기도 AI 클러스터 6개 거점 중 첫 번째로 조성됐으며, 나머지 거점은 2026년 2월 통합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 확산

저탄소 농가 4년 만에 3배 늘어

해남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의 저탄소 농가는 지난 2021년 120농가, 347ha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406농가, 1089ha로 늘어났다. 농가수로는 3배 이상, 면적 규모로는 213%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품목 또한 해남의 주요 농산물인 쌀, 배추, 고추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 무화과, 딸기 등 23개 품목으로 저탄소 인증을 확대하며, 저탄소 농업의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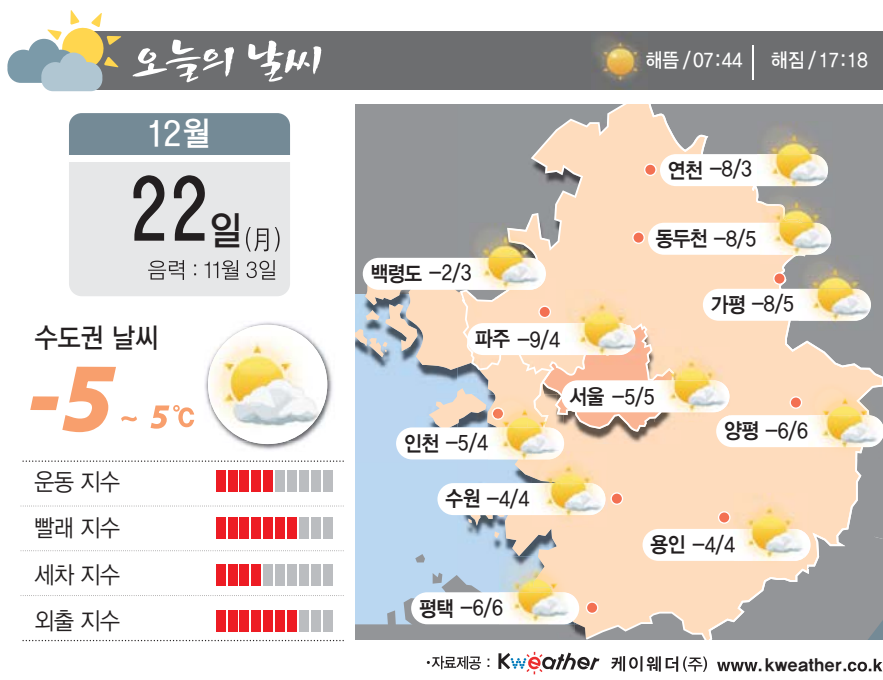
아울러 2023년부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까지 한우, 돼지, 젓소 등 3축종 3만4067두의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 지역. /해남군

해남군의 저탄소 농업 확산은 수년전부터 발빠르게 대응해온 결과로, 인증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탄소중립 농업 체계 전환을 이루어 가고 있다. 더불어 저탄소 농업 확산에 대한 군민 공감대와 농업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농가 교육,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 보급,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저탄소 농산물의 인지도와 소비를 높이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oh7505@



▲러시아, 미 정전회담 특사 파견 불구 오데사항 폭격 35명 살상
▲모스크바 부근 힘키 시에서 폭발로 1명 죽고 2명 부상

/사진 뉴시스

▲법 통과로 공개된 성범죄자 앱스타인 파일…검열·삭제·누락
▲티켓도, 탑승권도, 여권도 없었다…비행기 무임승차한 영남성

▲러, 항공기 이어 국경경비대원 에스토니아 불법 월경 20분 머물다 돌아가
▲스리랑카서 야생코끼리 산채로 불태운 男 3명 체포